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전파하고 싶어요”

●박지윤 상무팔죽 광주 월남직영점·지유니네 김치 대표

8년간 HID 복무...부모님 전남 이사에 작년 12월 광주로 내려와 '강철부대3' 출연...“소외이웃 돕고 경찰·소방관 등 위한 기부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지윤(29·사진) 상무팔죽광주 월남직영점·지유니네 김치대표는 25일 이같이 말하며 웃었다.

박대표는 지난해 12월 광주 동구 월남동에 팔죽 가게를 오픈하는 한편, 김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김치 생활을 접고 광주에 터를 마련했다.

2015-2022년 8년간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HID) 소속 군인으로, 최근에는 채널A·ENA 공동 제작 프로그램 '강철부대3'에도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그가 사업에 뛰어든 것은 부모님의 건강 악화 때문이었다.

박대표는 “부모님이 원래 경기도에서 식당을 오래 운영하셨는데, 얼마 전 두 분 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요양차 친척들이 살고 계신 전남

쪽으로 이사를 했다”며 “마침 군 생활 중 지금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전역을 마음먹고 있었던 터라 지도 함께 광주에 자리를 잡기로 마음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할 때 어찌 너머로 보기도 하고 손을 보태기도 했던 그는 그 경험을 살려 팔죽집을 열었고, 김치 사업도 병행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두 가지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게 직원들과 특제 “매운 김치”도 만들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봉천동 소재 동명아동복지센터와 여의도에서 열린 ‘제11회 행복한가게 마라톤 대회’에 각각 김치 100kg과 2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박대표는 “전부터 기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



이 컸었다”며 “지인을 통해 우연히 한 아동복지센터를 소개받게 됐고 아이들이 맛있는 김치를 먹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정착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다양한 이들과 교류를 통해 인프라를 형성, 소외 이웃들을 위한 기부 등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다”고 속마음을 내비쳤다.

박대표는 또 “특히 소방관, 경찰 등 현장직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기부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함께 군 생활을 했던 동료들 중 전역 후 현장직으로 이직한 이들이 많다”며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일하는 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맛의 고장 광주에 터를 잡은 만큼 가능하다면 앞으로 광주지역 최고 맛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며 “현재 강철부대3 촬영 이후 방송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 자신을 더 알리면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장은정기자



동강대, 광주 학교급식 관계자 직무연수

동강대학교는 “최근 교수연구동 5층 융복합 쿠킹클래스에서 광주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관계자 직무 연수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동강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가 진행한 이번 연수는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학교급식 영양사와 조리사, 영양교사가 참여해 ▲녹색식생활 활성화를 위한 레시피 개발 ▲오븐을 활용한 조리작업 능력성과 안전성 확대 ▲글로벌 요리에 대한 이해와 급식 활용 등에 대해 교육했다.

연수를 담당한 오명진 교수는 “지역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고 미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기자



‘전남대 사범대학 50년사’ 출판기념회 성료

‘전남대 사범대학 50년사’ 출판 기념회가 지난 24일 전남대 교육융합관에서 열렸다.

전남대 사범대는 1972년 3개 학과로 개교해 한 때 22개 학과까지 늘어났으며, 지난 50년 동안 유·초·중등의 우수한 교사와 연구자 1만 8천여명을 배출한 우리나라 대표 교육기관이다.

70년대 유신교육을 비판한 1978년 ‘교육지표 사건’으로 해직된 김두진·홍승기 교수를 비롯해 해직 교사에서 전남교육감까지 오른 장석웅 동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박기순 열사, 계엄군의 총에 산화한 이정연 열사, 민주화 운동의 별이 된 신영일 동문 등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었다.

사범대학의 역사는 곧 질곡과 영광으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었으며 50년사는 이

같은 기록을 800여 페이지에 걸쳐 담담히 기술하고 있다.

50년사 편찬을 주관한 정난희 학장은 “우리 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역사를 되돌아보며 기억하는 소중한 사료”라고 전제한 뒤 “미래 비전을 품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준비할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은 ‘사람대상’을 받았으며, 이계운 전 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종백 전 사범대학장, 허승준 광주교육대 총장, 박선미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 추진단장 등은 ‘자랑스런 사범대인상’을 수상했다.

50년사는 사범대학 동창회(회장 문병재)를 비롯한 동문들이 기탁한 4천500여만원의 기금으로 출간됐다. /김다이기자



광주자치경찰위원회, 5개 경찰서 치안 현안 공유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5일 광산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 등 지휘부와 간담회를 갖고 치안 현안 사안들을 공유했다.

앞서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동·서·남·북부경찰서 등을 순회 방문, 치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 예방 대응,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분야 주요 시책들을 점검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록우산 광주본부-엔젤하우스 ‘위기영아 지원’ 협약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는 25일 “전날 엔젤하우스와 ‘광주시 위기영아-위기임상부 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위기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필요 물품 및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은영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은 “상호 협력해 위기영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시책인 북부경찰서 ‘중앙동 일대 범죄취약지구 지원 사업’과 광산경찰서 ‘월곡동 다문화 안전 주민센터 건립 사업’ 두 가지에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 등을 살펴보고 점검했다.

안진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북부·광산서 방문을 끝으로 광주 5개 경찰서를 모두 살펴봤다”며 “이를 바탕으로 2기 자치경찰위원회 활동 방향을 수립하고 앞으로 일선 치안 현장과 지속 소통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경기자



전남도,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워크숍

전남도와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25일 진도 솔비치컨벤션센터에서 시·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워크숍’을 열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워크숍은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로 이관된 이후 기관별 역할 공유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공공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는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우수 사례 공유,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마을 중심 아동학대 예방 사업 ‘남도아이 지킴이단’ 활성화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한국의 아동복지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워크숍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별 유대 관계와 역할을 의논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해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22개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3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0명을 배치해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1개소,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국립생물자원관 등 ‘자생 원핵생물 합동 워크숍’

국립생물자원관과 산하기관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5일 “전날 OCC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자생 원핵생물 분야 합동 워크숍 및 조사·발굴 연구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부경대학교가 참여해 향후 연구사업 방향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2024년도 연구과제 진행 현황 및 중간 결과를 확인했다.

세 기관은 자생 원핵생물 조사·발굴 전략 수립 및 기후변화와 탄소고정 등 환경 현안 대응 일환으로 지난 6월 합동 워크숍을 통해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생물 다양성이 높은 특이 서식지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와 두웅



습지에서 원핵생물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김창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사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합동 워크숍과 보고회를 계기로 국내·외 원핵생물 조사·발굴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생물자원 조사·발굴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담양고, 학생 자율 교육과정 ‘담빛 H!’ 호응

담양고등학교는 25일 “전날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한 학생 진로 관련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인 ‘담빛 H!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담빛 H! 프로그램’은 진로진학설계를 위한 학생주도형 교과 EXPO와 융합형 프로젝트 발표회로 구성돼 과목 설명회, 전시·교과 상담, 체험 등이 운영됐다.

교과 EXPO에서는 학년별 과목선택 설명회와 교과별 5개 상담부스가 마련됐으며, 학생들의 주도적인 진로진학설계를 위해 과목별 교과서 전시, 학년별 과목 선택 길라잡이, 담빛 H! EXPO 리플릿 제공 등이 이뤄졌다.

융합형 프로젝트 발표는 미래역량 함양 및 진로 관련 분야로 ‘인공근육과 근전도 센서를 활용한 신체능력 향상’ 등 우수팀으로 선정된 17개팀이 발표에 나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소통했다.

김승철 담양고 교장은 “행사에서 발표된 진로와 관련한 융합형 프로젝트는 2학기에 도입을 보완·확장해 계속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도농기원, 시·군 농기센터 소장 업무협의회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5일 도내 2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업무협의회에서는 시·군별 영농 상황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업무 협조 사항을 전달하는 등 지역 농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장마 후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 강화와 집중 호우 등 이상기상 대응, 가뭄 대책 현장 기술 지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등 차질 없는 영농 추진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재정기자

인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실형동물 자원센터 센터장 박대호 ▲융합기술원 원장 윤정원 ▲행정안전처 처장 전상훈 ▲감사부 부장 오승희